



# 주체의 가치 높이 백승의 한길로

력사적 인 남 패 자 회 의 기념 일 을 즈음 하여

백두에서 개최된 주체혁명위원회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백승의 혁사로 빛나는 우리 혁명은 자기 발전의 진행정에 위대한 진리를 아로새겨 왔다.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은 물론 레일의 승리까지도 확고히 담보해 주는 위대한 철학. 그것은 선군혁명의 기관차가 자주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여 올 수 있게 한 주체의 기치였다.

오늘도 언제나 승리의 표대로 혁명의 앞길에 힘차게 나부끼는 주체의 기치에 대하여 되새겨보느라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주체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며 엄혹했던 조선혁명을 새로운 양상으로 이끄신 혁사적인 남파자회의가 가슴찌릿하게 안겨온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운나라 전체 인민이 수령님께서 지니시였고 우리 당에 위하여 계승되는 신념과 배짱을 그대로 닦는다면 우리는 적들의 그 어떤 도전도 저지시며 반드시 이 땅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남파자회의가 전 행된 때로부터 어느덧 72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려사적인 남파자회의에서 우리 혁명의 전진로상에 두렵게 걸어들었던 시련의 동토대를 위대한 주체의 몇 밤로 놀고 누워 허리 시민 백두산청년장군이 우리 수령님의 강철 같은 혁명적 신념과 불굴의 의지, 드센 배짱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불태워주고 있다.

남파자회의 소집될 당시의 정세는 우리 혁명 앞에 주체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공세, 서간도

와 국내의 혁명 조직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애국적인 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케 한 《해산 사건》, 좌경 모험주의가 빛어낸 열하원 정의 후파 …

이전에는 형편에서 하루빨리 적의 공세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적 방안과 좌경 모험주의의 후파를 가시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혁명은 엄중한 위기에 직면 할 수 있었다.

위대한 형편에서 하루빨리 적의 주체의 기치를 높이 떨 때만이 반드시 이룩될 수 있다는 철의 진리가 온 장내에 빛발쳤다.

조국으로의 고난의 행군,

이것은 조성된 정세로 보아 누구

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 혁명의 기관이라는 자주적립장을

지니시고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이

연임의 수령군을 결단코 단행 할 대용

을 내리시였다.

밀영에 머물러 있으면 한해 거울을

무사히 보낼 수도 있고 려량도 보존

할 수 있었지만 이 길을 헤치고

나가시면서 항일혁명투쟁과 새 조

국건설, 조국에 방전평과 사회주의의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시

었다.

언제인가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보여주

는 회고록 형화문 《조국광복을 위하여》 제 17부를 보시고 참으

로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마다 수령님의 혁명적사를 되새

겨보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

군 합니다. 오늘도 회고록 형화문

을 보면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 승리에 대한 드높지 않는

신념과 배짱, 불굴의 혁명정신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

막아나서도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끌끌기 환성하

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였습니다.

사상과 평도, 풍모와 자질에 있

어서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

회 날마다 남파자회의가 성과적으로

주체혁명위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혁명적 신념과 배짱을 지닌 영웅

적인민이 있는 세상에 유일무이

된다. 하기야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

속에 세 차례 고동치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시고 고단

신으로 간직한 혁명적 군대와 인

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최

후의 승리를 이루 한다는 드림없

는 신념이다.

위대한 수령님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가 고난의 행군의 앞길에 휘

날뛰던 것처럼 오늘도 그날의 기

치는 시대를 진감하는 혁명적 대

고조의 진군길을 힘차게 떠밀어

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존엄높은

내 조국땅에는 반드시 주체의 사회

주의 강성대국이 높이 솟아 빛날 것

이다.

김명훈

반영되어 있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도 오직 주체의 기치를 높이 떨 때만이 반드시 이룩될 수 있다는 철의 진리가 온 장내에 빛발쳤다.

조국으로의 고난의 행군,

이것은 조성된 정세로 보아 누구

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 혁명의 기관이라는 자주적립장을

지니시고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이

연임의 수령군을 결단코 단행 할 대용

을 내리시였다.

밀영에 머물러 있으면 한해 거울을

무사히 보낼 수도 있고 려량도 보존

할 수 있었지만 이 길을 헤치고

나가시면서 항일혁명투쟁과 새 조

국건설, 조국에 방전평과 사회주의의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시

었다.

언제인가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보여주

는 회고록 형화문 《조국광복을 위하여》 제 17부를 보시고 참으

로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마다 수령님의 혁명적사를 되새

겨보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

군 합니다. 오늘도 회고록 형화문

을 보면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

승리에 대한 드높지 않는

신념과 배짱, 불굴의 혁명정신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

막아나서도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끌끌기 환성하

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였습니다.

사상과 평도, 풍모와 자질에 있

어서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

회 날마다 남파자회의가 성과으로

주체혁명위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혁명적 신념과 배짱을 지닌 영웅

적인민이 있는 세상에 유일무이

된다. 하기야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

속에 세 차례 고동치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시고 고단

신으로 간직한 혁명적 군대와 인

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최

후의 승리를 이루 한다는 드림없

는 신념이다.

위대한 수령님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가 고난의 행군의 앞길에 휘

날뛰던 것처럼 오늘도 그날의 기

치는 시대를 진감하는 혁명적 대

고조의 진군길을 힘차게 떠밀어

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존엄높은

내 조국땅에는 반드시 주체의 사회

주의 강성대국이 높이 솟아 빛날 것

이다.

김명훈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을 이어 가시면서도 대오의 앞장에서 원쑤들을 쳐물리치시며 부대정자에

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대명사로 되여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이념과 윤정여인 가르치심을 주시니 어찌 심장이 달아오르지 않을수 있으랴.

이날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려

관과 농민 향양소의 윤정정형도

알아보시고 과분한 치하도 주시

었으며 등산길을 더 연장하고

인민들이 많이 찾았던 마을것

즐길수 있게 장수산을 인민의

유원지로 더 잘 꾸리고 보존관

리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고 이

곳을 떠나시였다.

《김정일 동지는 인민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훌륭한 품도를 갖추고 있습니까?》

훌륭히 꾸려진 장수산유원지를 찾으신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일군께서 이곳에 헌금을 냈을 때였습니다.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여기에

인민들이 많이 찾았던 풍물로

가르치주신 아름다운 풍물이

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그 풍물

을 놓고 훌륭한 풍물로

가득한 풍물을 놓았습니다.

&lt;p







## 철 면 피 하 고 주 제 넘 은 행 위

일본군 국주의자들은 국제 사회에 몸을 잡고 살수 없는 무례한들이 다. 파괴 청산이라는 무겁고도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걸고자고 있으며 시치미를 떼고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넘겨다보는 일본반동들의 치운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치운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얼마 전 진행된 유엔총회 제 65 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일본대표가 되기로 망발은 세계의 민심과 정의를 무시한 파렴치의 국치이다.

그는 연설에서 일본은 파괴 범죄에 대해 이미 『사죄』 하였으며 『국제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 될 자격이 있다고 빼쳤다. 그의 연설은 세계를 우롱하고 흑백을 전도하는 나발이다.

일본의 파괴 청산은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 민들의 한결같이 비탄하는 것이다. 일제가 폐탕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인민은 일본 정부가 파괴 범죄에 대해 똑바로 사죄, 반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저지른 파괴에 대한 사죄와 반성, 배상은 일본이 파괴와 결별하고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 인민에게 파괴 조선 침략에 대한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다. 배상에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도 없다. 이러한 일본이 마치도 파괴 침략 범죄에 대해 이미 전에 『사죄』하고 그 청산을 마무리 짓은 것처럼 속았을 전도해나서는 것은 우리 인민에게 지지르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이 파괴 범죄에 대해 이미 『사죄』 하였다고 들고나오는 이 죄의 유구한 혈육과 슬기를 통제로 말살하려고 간악하게 책동한 폐체는 없다.

일본은 지난 날에 저지른 침략 범죄를 최대의 범죄로 여기고 때늦게나마 사죄와 배상의 길을 랙 할 대신 그것을 은폐, 악화시키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별의 별 오그랑수를 다 써왔다. 그들은 저어 일본군에 안부법 편지를 조선인 성들의 『자발적인 의사』나 부모들의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치웠다.

그들은 파괴 범죄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지난 날 일제가 저지른 범죄를 구양하면서 옹호해나섰다. 일본반동들은 파괴에 자기 나라가 조선인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유미령 강들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구원하고 저지주기 위해 『해방전쟁』을 벌렸다고 우겨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 일본의 『번영』을 도와주었다고 그에 달려들어 집단적으로 통용하고 그것도 성자지 않아 그들의 젖 가슴을 끌려내고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갈라태아를 끌고 들어여 밟아죽이고 물을 풀라 죽이는 등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극우들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 침략 초기에 조선을 파괴 폭압의 런무장을으로, 인간생지 유효으로 전시시키고 우리 나라의 무진장한 자원과 우리 인민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틀어내며 파괴, 탈취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맹주는 일관되게 표방한 것과 관련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중국은 그 어느 일당이 일본과 남조선의 협력 훈련을 반대하는 정부의 힘장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적용하였다. 역사에 침략자, 강점자 문제를 다 해결된 것처럼 우겨내는

들의 만행자료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일제와 같이 한 나라, 한 민족의 유구한 혈육과 슬기를 통제로 말살하려고 간악하게 책동한 폐체는 없다.

일본은 지난 날에 저지른 침략 범죄를 최대의 범죄로 여기고 때늦게나마 사죄와 배상의 길을 랙 할 대신 그것을 은폐, 악화시키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별의 별 오그랑수를 다 써왔다. 그들은 저어 일본군에 안부법 편지를 조선인 성들의 『자발적인 의사』나 부모들의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치웠다.

그들은 파괴 범죄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지난 날 일제가 저지른 범죄를 구양하면서 옹호해나섰다. 일본반동들은 파괴에 자기 나라가 조선인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유미령 강들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구원하고 저지주기 위해 『해방전쟁』을 벌렸다고 우겨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 일본의 『번영』을 도와주었다고 그에 달려들어 집단적으로 통용하고 그것도 성자지 않아 그들의 젖 가슴을 끌려내고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갈라태아를 끌고 들어여 밟아죽이고 물을 풀라 죽이는 등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극우들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 침략 초기에 조선을 파괴 폭압의 런무장을으로, 인간생지 유효으로 전시시키고 우리 나라의 무진장한 자원과 우리 인민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틀어내며 파괴, 탈취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맹주는 일관되게 표방한 것과 관련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중국은 그 어느 일당이 일본과 남조선의 협력 훈련을 반대하는 정부의 힘장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적용하였다. 역사에 침략자, 강점자 문제를 다 해결된 것처럼 우겨내는

일본이 어떻게 국제 정치 무대에 머리를 쳐들고 나설 수 있으며 더우기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희비이다.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 자리를 넘겨다볼수 있는가? 그것은 국제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엔의 청렴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해외 침략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최소한은 파거를 한 사고 사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해외 행정 장애를 떠밀고 있는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면 세계 평화와 안전이 위로에 와지고 국제 사회가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일본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 한다는 것은 한미대로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구실 밖에 『자자위』의 해외 진출과 군사작전의 길을 터놓은 것뿐이다. 이것은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위협, 파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다.

일본은 전범국이다. 법적으로 전쟁 무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일본은 특히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 행동을 벌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론과 평화에 대한 『기여』의 미명 아래 비행기, 핵선 등 『자자위』 무력을 전투 지역에 투입하여 자주와 안정을 요구하는 인민의 투쟁을 탄압할 살상을 나섰다. 일본은 일본 반동들을 터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반동들은 파괴에 저어 일본인 여성의 배를 갈라태아를 끌고 들어여 밟아죽이고 물을 풀라 죽이는 등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극우들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강제 련행, 탐지하고 100여 명명을 학살 하였으며 20만 명의 여성들에게 성 노에 생활을 강요하였다. 일제 침략군은 피에 주린 송양이 마니 위안부들을 거두고 그에 따른 배상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저지른 파괴에 대한 사죄와 반성, 배상은 일본이 파괴와 결별하고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 인민에게

파작전을 통해 범죄적 파거를 재현하

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희비이다.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 자리를 넘겨다보는 것은 국제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엔의 청렴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해외 침략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최소한은 파거를 한 사고 사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해외 행정 장애를 떠밀고 있는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면 세계 평화와 안전이 위로에 와지고 국제 사회가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일본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 한다는 것은 한미대로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구실 밖에 『자자위』의 해외 진출과 군사작전의 길을 터놓은 것뿐이다. 이것은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위협, 파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다.

일본은 전범국이다. 법적으로 전쟁 무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일본은 특히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 행동을 벌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론과 평화에 대한 『기여』의 미명 아래 비행기, 핵선 등 『자자위』 무력을 전투 지역에 투입하여 자주와 안정을 요구하는 인민의 투쟁을 탄압할 살상을 나섰다. 일본은 일본 반동들을 터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반동들은 파괴에 저어 일본인 여성의 배를 갈라태아를 끌고 들어여 밟아죽이고 물을 풀라 죽이는 등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극우들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본은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강제 련행, 탐지하고 100여 명명을 학살 하였으며 20만 명의 여성들에게 성 노에 생활을 강요하였다. 일제 침략군은 피에 주린 송양이 마니 위안부들을 거두고 그에 따른 배상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저지른 파괴에 대한 사죄와 반성, 배상은 일본이 파괴와 결별하고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 인민에게

프란드신문 『튀이칸산 싸노마트』 14일부가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편집국은 주의로 동당 부위원장 박교 바트리 아이엔의 우리 나라

시기에 조선을 방문하였다. 당 대표자 회의에서는 김정일 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 없이 높이 추대하였다.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는 조선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일심 단결되어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혁신적인 회의였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자기의 정착한 로선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혁명과 결연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뛰어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조선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길 목표를 내걸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현 남조선 『정부』의 행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통일을 바라는 조선민족의 한 결같은 지향을 억누르고 조선반도에 대결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시위로 세우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 시장에서 이룩되었다. 조선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시고 부강조선을 일떠세우신 그이이시야 말로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이다. 신문은 수도 평양의 거리와 공원들은 매우 깨끗하다. 거리마다에서 높은 수준의 조각과 선전화들을 비롯한 미술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조선인민에게는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다. 일본은 시대의 흐름과 인민들의 지향을 놓아두고 암울한 유엔의 책임적 행위를 차지하려 하는 것은 미루지마 품종을 꾸는 것과 같다. 일본의 파괴 행위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는 우리 인민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일본은 시대의 흐름과 인민들의 지향을 놓아두고 암울한 유엔의 책임적 행위를 넘어서는 조선인민에게는 광경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허황한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편집국은 주의로동당과 조선반도에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엄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이다.

본사기자

백문 규

대표자회가 열리는 이후 중요한

대표자